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PCR 검사·고위험층 관리 집중

전국 코로나19 완만한 감소세…검사체계 민간 중심으로 전환

병·의원서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취약계층에 자가키트 배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드는 등 코로나19가 일상화하면서 검사 체계 등도 민간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도 11일부터 중단된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5335명, 전남 7802명 등 1만 3137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전남은 지난 5일 1만 8461명, 6일 2만 1542명, 7일 1만8044명, 8일 1만 5990명, 9일 1만 4924명 등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10만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만 4481명 늘어 누적 1533만 36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18만 5566명으로 지난 4일(12만 7163명) 이후 닷새 만에 2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날은 전날(9일)보다 2만1085명 더 줄었다. 1주일 전인 3일 23만 4265명과 비교하면 6만 9784명, 2주 전인 지난달 27일 31만 8070명보다는 15만 3589명 적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7일(16만 3558명) 이후 6주 만이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에는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 중반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 확진자 수도 다시 증가할 수 있지만, 다수의 국내 대학연구팀은 지난 6일자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2~3주 내 10만명 이하 발생 등 유행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그동안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도 11일부터 중단된다.

방대본은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하고, 남은 역량은 고위험층 관리 등에 집중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해 관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시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모처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러시아, 유엔 인권위서 퇴출…회원국 93개국 압도적 찬성

中·北 등 반대 24표·기권 58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한국 등 유엔 회원국 93개국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다.

표결 불참·기권 국가 이외에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이 결정됐다.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인권위에서 내쳐졌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산하 기구에서 자격을 잃은 첫 사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자행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이유로 결의안을 추진했다. 심각하고 조직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세르게이 끼슬리짜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 표결에 앞서 "러시아는 인권침해를 저지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토대를 흔드는 나라"라면서 "반대표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주요 서방 국가들은 찬성 표를 행사했다.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은 반대 표시를 나타냈다. 특히 김성 북한 유엔대사는 연설에 나서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는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발언권도 박탈된다.

겐나디 쿠즈민 주유엔 러시아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불법적이며 정략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인권위 탈퇴를 선언했다. 끼슬리짜 우크라이나 대사는 "해고 후에 사표를 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행보를 비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한국형 아이언돔' 2029년까지 개발 완료

軍, 기존보다 6년 정도 앞당겨…北장사정포 수도권공격 방어용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이르면 2029년 전력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유도무기체계 발전방향(안)' 자료를 통해 올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탐색개발을 진행하고, 2029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2029년까지로 타임라인을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 개발을 공식화하며 밝힌 목표 시점(2035년)보다 6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LAMD 사업은 북한군 장사정포(240㎜, 300㎜)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안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한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개념이어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긴 하지만, 하마스 등 무장단체와 비정규군의 로켓포 등을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이스라엘제보다는 더 높은 기술적 난이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배포 자료에서 개발 완료 시 기대 효과에 대해 "세계 최초 장사정포 요격 무기체계 적기 개발로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적시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3605-5000

백운광장~남광주농협 550m구간 중앙선 변경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에 따라 백운광장 주변 교통 체계를 일부 변경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통전환 구간은 백운광장부터 남광주농협까지 550m이며, 공사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차로수는 현행과 같이 7차로가 유지되지만, 남구청 앞 공사를 위한 점유 구간이 넓어짐에 따라 중앙선이 푸른길 방향으로 일부 이동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번 교통체계 전환에 따른 백운광장 내 유도선 재도색 등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모범신호수 배치를 늘리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대경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당분간 해당구간의 교통이 다소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문학자원 활용 관광산업화 박차

작가·작품·문학관·작품 배경지 등 연계 프로그램 시·군 공모

전남도가 지역 문학자원을 소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문학단체 등과 연계해 특색있는 문학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문학 자원 연계 프로그램' 공모를 추진한다.

문학자원 연계프로그램 사업은 전남지역 곳곳에 흩어진 도내 주요 작가와 작품, 생가, 문학관, 영화세트장, 작품 속 배경지를 활용해 문학축제, 문학콘서트, 문학유산 답사, 문학기행,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돼 보성군은 '소설 태백산맥과 함께한 37년, 다시보는 미래'를 주제로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문학기행 및 북토크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해남군은 한국미술협회 해남군지부와 협력해 해남의 대표 현대 문인인 이동주, 박성룡, 김남주, 고정희 시인의 시를 미술작품으로 재해석하는 특별전, 지역작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도보문학길답사 등 다채로운 문학행사를 진행했다.

목포시는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목포를 배경삼은 작품 및 작가, 문학작품을 연계한 목포문학 스토리텔링 창작 아카데미, 주민이 낭독법을 배워 목포문학 오디오북을 직접 제작하는 '목포문학, 너의 목소리가 들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전국 최초 문학을 주제로 한 '문학박람회'를 성공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목포 문학길 투어, 목포문학여행, 선상문학콘서트 등 문학관광상품을 통해 문학이 지역의 새 관광자원이 될 가능성을 발견했다.

올해도 전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시·군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군은 타 지자체, 대학교, 문학단체, 동호회 등과 연계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 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상가건물 다량보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창,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